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4면
'남원발전연구소' 문 열다

전주매일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음 7월 26일) 제357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통합원광대, '글로컬대학' 되다

〈원광대 · 원광보건대〉

2024년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최종 선정 '쾌거'
향후 5년간 국비 1500억 · 지자체 1170억원 지원
'생명산업 글로컬 거점대학'으로 자리매김 계기

원광대 · 원광보건대(이하, 통합원광대)가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원광대가 '2024년 교육부 글로컬대학30'에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컬대학을 지정해 지정된 대학당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지난 4월 16일 예비 지정된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행계획서, 대면 심사 평가 등을 거쳐 최종 10개 대학을 선정했다.

원광대 · 원광보건대는 '생명산업의 글로벌 거점대학'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양 대학의 역량을 결집하는 통합 모델을 제시, 향후 5년간 1,5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지자체와 함께 생명산업 글로벌 인재 양성 도약을 위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다.

이번 통합원광대의 글로컬 대학 선정은 통합 원광대의 담대한 혁신안은 물론, 지자체와의 협력이 크게 주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관영 지사는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도 통합 원광대가 과감한 혁신을 통해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의 혁신 엔진이 될 수 있도록 5년간 7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익산시 등 시군 또한 총 1,170억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통합 원광대와 함께 생명산업 분야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 산학협력 등을 통해 지역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공고히 이어나가는 한편, 익산 건강 기능성 식품부야 기회 발전 특구 · 교육 발전 특구와 연계해 기업 유치 및 지역 정주형 인력 양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합원광대 글로컬 대학 비전인 '생명산업의 글로벌 거점대학'으로의 도약은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익산시 '의료 행복 도시'와 '식품 산업 수도' 비전과 함께하는 것으로 지자체 발전과 더불어 통합 원광대가 국가 생명산업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두 대학은 지역사회와 세계를 연결하며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을 통해 양 대학의 강점인 의료 및 보건 전(全) 분야 학과 보유 역량과 RIS(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농생명 · 바이오 중심 대학 역량을 결집하여 건강하게 살고(의 · 생명), 안전하게 먹고(농생명), 행복하게 누리는(생명 서비스) 생명산업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W.I.T.H. 밸리를 중심으로 지 · 산 · 학 · 병 · 연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의 농 · 생명 클러스터, 국가 식품클러스터 등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황진수 원광대학교 부총장과 백준흠 원광보건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글로컬대학 30 사업 선정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도 주력해 해외 유수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을 강화하고, ODA 사업과 연계한 국제협력과 아울러 L2G(Local to Global)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리 학생들이 세계적 수준의 대학 및 연구소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ODA 기반의 유학생 유치, K-MED 성과의 글로벌 확산, 세계농업대학 설립 등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통합원광대는 글로컬 대학 주요추진 과제로 △생명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통합 WON UNIV. 출범 △생명산업 중심 학사 체계 재구조화 △생명 존중 학사제도 대혁신 △생명산업 R&BD 전문 인재 양성(전북바이오융합대학원) △W.I.T.H. 밸리, 생명산업 생태계 허브화 △생명보듬 거점대학 구현 △글로벌 생명산업 인재 양성을 제시하며 생명산업 혁신 방향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강조했다.

박성태 원광대 총장과 백준흠 원광보건대 총장은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비전 달성을 위해 양 대학이 서로 합심하여 대학 통합과 혁신을 이뤄가겠다"라며, "나아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그동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생명산업 글로벌 인재 양성에 함께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통합원광대 글로컬 대학 선정은 지난해 RIS, RISE 시범지역, 전북대 글로컬 대학 및 올해 교육 발전 특구 선정에 이어,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가고 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라며, "거점국립대 전북대와 사립대학의 중심인 통합 원광대 글로컬 대학이 지역발전의 양 날개가 되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익산=이재춘 기자

도내 시군 모두에 화재피해주민 지원

전북소방본부, "내달 지원조례 제정 예고"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오는 9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14개 시 · 군 모두에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2020년 도 단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각 시 · 군에서도 지역 간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 및 균형 해소를 위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주택화재 현황 등의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시 · 군 재난안전 담당부서 및 기초의원과의 면담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21년 순창군의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부안군, 전주시, 남원시, 2022년에는 장수군, 임실군, 익산시, 진안군에서 제정했고, 2023년에는 고창군, 무주군에 이어 올해 7월 군산시, 김제시에 조례가 제정됐으며, 마지막으로 오는 9월 완주군과 정읍시가 조례 공포가 예정 중에 있다.

완주군과 정읍시의 조례 공포가 되면 도내 모든 시 · 군에 조례제정이 완료되어 도민 누구나 차별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만호 기자

국내 중견 패션 물류기업, 완주군에 둥지

코웰패션, 전북자치도 · 완주군과 협약 체결… 의류 판매시설 등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코스닥 상장사인 코웰패션(주)이 완주군에 투자를 결정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 코웰패션, 완주군, 완주테크노밸리(주)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최용석 코웰패션 대표 등이 참석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키로 뜻을 모았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코웰패션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 일반산업단지 4만여㎡ 부지에 물류 및 의류 판매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해당 업체는 부지조성부터 건축, 인력고용 등에 도내 기업과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코웰패션(주) 투자협약식에 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유희태 완주군수, 최용석 코웰패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웰패션은 지난 1974년 설립된 전자부품 제조업체로서, 관계사 등을 통해 패션 및 물류사업 등 사업을 다각화하여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통합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패션물류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로젠택배를 인수했고, 2022년에는 김제 물류센터를 완공해 관계사 등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김제시 용지면으로 본사를 이전하기도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코웰패션과 함께하게 돼 기쁘다"라며, "지역 방문객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코웰패션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자치도에 자리잡은 코웰패션이 앞으로도 전북지역 발전에 큰힘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코웰패션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이행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완주=염재복 기자

전북 농생명산업, 디지털 혁명으로 미래 열다

전북자치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워크숍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활용해 농생명산업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렸다.

전북자치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훈 · 라승용)는 28일 완주군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도내 28개 농생명 연구기관, 대학 등 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농생명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협력을 주제로, 다양한 전문가 특강과 문제 해결형 타운홀 미팅을 통해 위원들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북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위원들이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농생명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

특히, 대통령 소속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 이주량 위원의 '농생명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기술 동향'에 관한 특강이 큰 관심을 끌었다.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는 2015년 출범한 농생명 연구협의체를 확대 개편하여, 도내 농생명 · 바이오 분야 국책사업 발굴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워크숍에서 논의된 농생명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